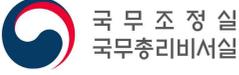
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| 보도설명자료 (배포) 2017. 7. 26(수) |
| 즉시 사용 | | |
| 담당 | 국무조정실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 | 과장 이상로, 사무관 조해린 (02-3148-0422) |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원전 전문가 참여 등 관련
 (7.25일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매일경제, 한국일보, 서울신문, 이데일리 등)

□ **보도내용**

❖ 7.25일자 매일경제, 서울신문 등에서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“원전·에너지 전문가 제외”되었으며 “3개월 만에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”이라고 보도

□ **설명내용**

-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,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
-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
 - ※ 6.27일 브리핑, 7.7일 보도자료 배포
- 이후 분야별 기관·단체의 추천, 찬·반 양측의 제척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음

- 또한, 공론화 방식에서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
 -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,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임
- 공론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신속한 추진이 바람직
 - 공론화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학습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